

월요광장

지속 가능한 혁신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정치적 이슈들뿐 아니라 단골 메뉴인 공공 혁신, 규제 개혁과 같은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끝날 때마다 정치권은 규제 개혁, 공직 기강, 공공 혁신, 민생 안정 등에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해 왔다.

‘혁신’은 목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개혁과 쇄신을 들 수 있다. 오래되고 낡아서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을 뜯어고쳐겠다는 뜻이다. 좋은 의미의 혁신은 회사나 사회, 크게는 국가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것은 지키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쇄신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조, 사회 제도를 고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혁신도 있지만,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어떤 상황이나가 중요하다. 쿠데타와 같은

국가적 혁명과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 부분의 혁명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혁신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법률이나 조직, 시행령이나 시책을 제시할 것인데 이렇게 내세운 혁신들의 내용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야 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 진행형의 정책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혁신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기업이나 산업 전반을 변혁시킨 혁신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나 책 등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일 것이다. 혁신은 기업의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로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쳐지고 도태되는 일들을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어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매년 경영의 실천 화두에서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 스토리가 지속적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진실이라는 칼럼을 접한 적이 있다. 눈길을 끄는 내용은 “비전을 가진 리더가 꼭 필요하진 않다”는 점이었다. 흔히 비전을 갖춘 리더가 혁신적인 기업을 주도 하리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다. 그러나 사실상 예외가 가깝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혁신을 지속한 기업 대다수는 한 사람의 리더를 넘어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확률이 크게 높고, 점진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체계적

이고 일관적인 혁신 전략이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혁신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혁신이 성장해 결실을 보려면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혁신의 가치를 믿는 직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혁신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혁신 지지자를 발굴하는 데에도 유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개발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부로 눈을 돌려 기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만한 흥미로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넓히는 교육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풀 수 없는 근본적인 과제들을 연구하는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영감과 창의성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체계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혁신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의 일부는 언뜻 이해할 수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산업 현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내용으로 더욱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수필의 향기

고마움을 찾아보세요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당신, 이제 막 퇴근한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아들딸, 회사원 그리고 동료 여러분 진실로 고맙습니다. 수고한 만큼 밥도 맛있고 행복도 더 클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바람막이가 되었다면 옷이 젖고 해 지더라도 좋은 일입니다. 하수구를 손보고, 청소하고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셨다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훌쩍분하게 웃는 당신, 지근 웃는 당신의 선한 미소보다 더 맑고 고운 웃음도 없답니다.

삶은 경이롭고 수고롭습니다. 경이로움보다 저는 수고로움 쪽에 일부러 서곤 합니다. 선사시대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 화순 고인돌 공원으로, 우주비행의 현장을 보기 위해 나로도로, 섬을 찾아 완도로 가는 여행도 신비롭습니다. 허나 논둑의 풀을 베고, 감자를 심고, 목재 소에서 나무를 나르고, 노인급식소에서 노인들을 위해 설거지하는 일은 더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창조된 물상의 신비로움보다 노동을 통해 얻는 체험, 땀과 노력으로 내가 만든 신비로움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하니깐요. 세상에는 간혹 두 눈을 크게 뜨고 도 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니다.

밥상 앞에서 오늘 하루, 가족의 무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밥상을 차린 아내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상 위에 놓인 김치를 보고 어머니 감동하시느라고 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뿐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발을 갈고 두엄과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별레를 잡고 뽕고 다듬고, 그리고 말릴 것은 말리고 땀을 것은 뽕고 쪼갠 것은 쪼개고 그런 것이 뽕땀 합쳐져서 온 감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노고를 읽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거나 과자를 사 주신 할머니께 감사하곤 합니다. 가게 주인에게 과자를 받고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는 아이들처럼 허투루 여기저기 앉으시겠지요. 과자를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땀 흘린 분들과 예쁘게 포장하신 분들에게까지 여러분의 고마움이 충분히 닿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슈퍼 주인이나 정육점 주인 뿐만 아니라 그 닭과 돼지 그리고 소를 소중히 키운 축산 농민에게도 감사해야겠지요.

기차를 타고서 즐겁게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승차할 때, 관원자나 기관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지만 뜨거운 여름날이나 북풍한설 몰아치는 한겨울에

도 철로를 살피고 열차 안전을 살피는 노동자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당신의 쾌적한 안행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신이 포근한 의자에 앉아서 고향 어머니에게 거나 멋지게 음악을 들으며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 누군가의 수고로움 덕분일 겁니다.

가족과 맛있게 저녁을 들고 계시지요. 밥상 위에는 저 먼 남쪽 지역 농민들의 땀과 기꺼이 풍량을 마다하지 않고 먼바다까지 나선 어민의 노고 없이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밥 한술에도 범벅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벼를 베서 말린 농부의 수고 말입니다. 거기에 그 쌀 한 톨이 될 때까지 바람과 비와 천둥, 햇살은 또 어떻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밥상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허다할진대,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을까요.

허겁으로 전해오는 미각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봉사, 이웃의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하고 있지요. 내가 오늘 이 삶의 건넌목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혹시 청맹과시처럼 두 눈을 뜨고도 일부러 외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물론 지구가 돌아가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해와 달이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는 일까지 고마워할 필요가 있는나고 합디마는 그나저나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고마운 일을 찾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기고

새 술은 새 부대에



신일섭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상식한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타져 썩어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현 부대 때문에 애써 빛은 새 포도주마저 망치게 된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잘 보존되는 것이다. 성경 마태의 복음은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상만사 당연한 이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20대 대통령 선거와 연이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규 권력의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중앙 권력이나 지방 권력에서 새 권력이 들어서면서 지난 정권의 몇몇 임명직 기관장들의 소위 ‘알박기’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권력 교체 시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반대가 49%, 임기 보장 찬성의 견이 40%를 좀 넘었지만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곳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 현역 시장이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당

선되면서 새 시장의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신규 시장 세력 간의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로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크게 영광된 일이지만 개인의 차이를 넘어 조직(정당)과 정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조직과 정책의 공약에는 선택받은 당선인의 철학과 방향, 내용, 생각이 녹아 있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은 다수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서 성공시켜야 한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의무이다. 그 약속과 의무 속에는 시정에 대한 책임과 시민의 신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책임을 받기하거나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그 생명력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 신규 시장 교체기에 세력간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 선거 뒤 이런 갈등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조례라도 만들어 정리해 놓았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이런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전임 이용섭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및 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 체제 아래서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을 임명한 전임 시장은 불행하게 선택받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새로 취임한 시장 밑에서 임명장도 없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

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법률적인 임기 보장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명권자가 바뀌었고 시민의 선택이 바뀌었는데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려는 임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는 전임 임명권자의 실패한 퇴진을 보면서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뿐이다.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비전과 공약으로 취임한 새 시장의 성공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전임 시장의 임명자들과 마주한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선택받은 새 권력이 들어서면 그 권력에 맞는 든실한 새 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의 시정 철학과 방향, 내용과 생각이 같은 새 동지들과 시민들이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철학과 방향, 내용과 생각을 공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당선된 시장과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도덕적·상식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덕과 상식은 법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시장의 공약은 140만 대도시 광주의 성공이나 실패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전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럴 때 일수록 광주의 성공과 전체 시민을 위해 열사봉공, 살신성인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社說

시도 상생 전북까지 확대 ‘호남’ 복원해야

민선 8기 개막과 함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상생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시도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연재부터가 소원해진 전북까지 협력과 공조를 확대해 한 뿌리인 호남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전남 자치행정에서 가장 기대를 모는 점은 광주시와 전남도 간 상생 협력이다. 강 시장은 최근 간부들에게 “전남에 줄 것이 있으면 충분히 주고, 양보도 많이 해야 한다”며 전남과의 상생 발전을 주문했다고 한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주가 선점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을 전남·전북은 물론 영남까지 확대하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잇그제 취임식에서 “광주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초광역 경제 동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시도지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구 감소 등으로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호남권 시도는 독자 노선을 고수하며 불협화음을 냈다.

새롭게 열린 민선 8기에는 이러한 초광역 경제권을 토대로 지역 간 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려면 호남권 시도 간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다. 우선 경제 분야부터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전북과 공조 체제를 단단히 다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중추 도시인 광주가 고도화된 산업 기반을 토대로 전남·전북을 배려하면서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치’ 없는 자치경찰 인사·예산권 보장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주민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치안 정책을 펼치는 제도다. 광주·전남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 학교 폭력·가정 폭력·야동 학대 범죄·교통 범죄 수사 등을 수행 중이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수립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자치경찰 시행 자체에 대해 아예 모른다고 답한 데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극히 낮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도가 허울 좋은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처럼 국가 경찰에 조직과 인사·예산 관련 권한을 집중시키고 교통·생활 안전 분야 등 일부 사무만 이양하는 구조로는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전보 등의 인사권과 징계권,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대정부 건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징계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분리,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범칙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등을 중점 과제로 건의했다. 무엇보다 인사권과 예산권 보장을 통해 지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도가 명실상부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전 매장된 인골(人骨)이 발견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 토양이 산성인 지역에서 인골이 온전히 보존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주목받는 인골 연구 결과가 종종 제시되기도 했다. 동신대 문화박물관이 2006년 발굴한 나주시 영동리 고분군의 인골 20여 구가 대표적이다. 5~6세기에 조성된 무덤에서 발굴된 이들 인골을 토대로 복원한 모습이 ‘마한인’(馬韓人)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인골 패류를 채취했다는 증거다.

최근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은 서기 300~500년 조성된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유하리 패총 두 곳에서 발굴한 인골 27개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의 치아 샘플에서 DNA를 추출한 뒤 염기 서열 정보를 게놈 해독기로 분석한 결과 여덟 명 중 여섯 명은 현대 한국인, 고훈시대(古墳時代) 초기에 발굴된 이들 인골을 토대로 복원한 모습이 ‘마한인’(馬韓人)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인골 패류를 채취했다는 증거다.

최근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은 서기 300~500년 조성된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유하리 패총 두 곳에서 발굴한 인골 27개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의 치아 샘플에서 DNA를 추출한 뒤 염기 서열 정보를 게놈 해독기로 분석한 결과 여덟 명 중 여섯 명은 현대 한국인, 고훈시대(古墳時代) 초기에 발굴된 이들 인골을 토대로 복원한 모습이 ‘마한인’(馬韓人)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인골 패류를 채취했다는 증거다.

한국계이지만 현대 일본인, 조몬계(기원전 1만 년~기원전 300년) 일본인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거 한반도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그만큼 다양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굴된 인골 샘플이 적은 탓에 학문 발전도 지체됐다. 지난 1월 예야 인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보관할 법적 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가 마련될 정도다. 때늦었으나 이 법을 토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한반도 고대인들의 삶과 생활상이 밝혀지고 관련 학문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뼈에 새겨진 역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